

IFES

뉴스레터

2024년 4월호

IFES NEWSLETTER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of Kyungnam University

IFES



**뉴스레터
19호(4월)
목차**

연구활동

1. 학술활동	03
2. 교수 연구활동	14
3. IFES 브리프	18
4. 북한·국제 정세 동향	19

연구소 소식

1. 연구소 동정	25
2. 언론 속의 IFES	27
3. 추천 도서	29
4. 예정사항	30
5. 안내사항	31

연구활동

학술활동

교수 연구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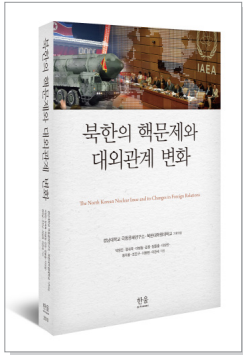
IFES 브리프

북한·국제 정세 동향



1. 학술활동

가.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 교과서 발간



1) 기획 취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와 북한대학원대학교 연구진들은 북한·통일학 연구를 선도하는 학술기관으로 핵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김정은 체제에 대한 상황을 정리·분석하는 교과서(학습서)를 발간하였다.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는 그 첫 권으로 북한의 핵 개발 40여 년 간 대외 변화와 그 과정에서 발견된 함의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과 세밀한 설명을 하였다.

책의 각 장에는 설명자료, 연표, 토의 주제, 추가 읽을거리 등이 포함되어 독자들이 학문적 깊이와 함께 실제적인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 연구자들에게는 의미 있는 지침서, 일반 대중에게는 유용한 학습서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하여 대내체제의 여러 면에서의 변화(정치, 경제, 사회문화, 군사 등)를 세밀히 조명한 두 번째 교과서(학습서)가 곧 나올 것이다.

2) 내용 소개 및 특징

이 책은 10개 장(Chapter)으로 구성되며, 북한이 핵무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대외적 변화를 국제 핵질서, 대외경제정책, 그리고 주요 국가(미·일·중·러)들과의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고찰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1장에서는 북한이 핵을 바라보고 개발해 온 시기별 전략과 배경을 세계질서의 변화와 함께 개략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북한에 미친 영향과 전략을 살펴보게 된다.

제2장에서는 핵무기 보유가 국가의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론적으로 접근한다. 핵보유국의 전략적 의도를 기존의 이론을 통해 살펴보며, 핵 보유에 따른 외생적 효과와 외교정책의 포괄적 변화에 대한 체계적 개념화를 시도한다.

1. 학술활동

제3장에서는 핵물질의 고유한 특성인 이중적 용도(dual-use)에 대해 살펴보고, '핵비확산 모범국'인 한국이 '사실상의 핵보유국' 북한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 다룬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의 비확산이 연결된 미래 한반도의 모습을 소개하였다.

제4장에서는 탈냉전 이후 높은 수준의 제재 및 평판 비용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국제 핵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패권대항 국가'라는 국가 정체성, '전략적 일탈'이라는 국가전략, '레짐 이동'이라는 외교정책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고찰하였다.

제5장에서는 핵과 제재의 상관관계를 짚어보면서 2006년 이후 시기별 대북제재의 유형과 특징들을 제재효과와 더불어 설명하였다. 대북제재가 북한의 대외경제 각 부문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대응을 대외경제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고찰하며, 향후 김정은 정권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전망하였다.

제6장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가 북중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전망하였다. 북중관계를 설명하는 지정학적 전략가치, 변수와 정책 기조에 북한의 핵 보유가 지니는 의미를 김정은·시진핑 시기 북중관계의 작용과 반작용 관점으로 풀이하였다.

제7장에서는 북한 핵문제가 불거진 지난 30년간 북미관계 변화 과정을 설명하였다. 북미 협상의 실패가 비핵화와 체제보장 사이의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차이에 기인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설명하였다.

제8장에서는 일본의 안보와 직결된 북한 핵문제가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의미를 지니게 된 2006년 북한의 첫 번째 핵실험 이전 시기의 북일관계를 개관하며, 납치, 핵과 미사일 등 3대 현안을 중심으로 한 북일관계의 궤적을 당시의 국제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다.

제9장에서는 북한 핵실험 이후 북러관계의 신밀월을 논한다. 북러관계가 군사동맹의 성격을 배제한 친선관계에서 제한적인 군사협력 방향으로 발전해나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를 촉진한 요인과 동북아의 정치적 상황을 탐색하였다.

제10장에서는 북한 핵개발과 대외관계 변화를 다룬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정치체제의 특징과 대외정책 결정 구조를 설명하며, 이를 바탕으로 핵개발과 함께 변화한 김정은 시기 북한의 국가전략노선과 대외정책을 시기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징과 함의를 제시하였다.

3) 목차

 < 목 차 >

- chapter 1. 북한 핵 프로그램: 전략의 결과와 북한의 변화**
- 박정진(경남대 부총장)
- chapter 2. 핵무기 보유와 외교정책의 변화: 이론적 접근**
- 정재욱(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chapter 3. 북한 핵무기 개발 동인 및 과정, 그리고 한국의 대응**
- 이병철(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chapter 4. 북한 핵개발과 국제 핵질서: 패권대항 국가의 전략**
- 김정(북한대학원대 교수)
- chapter 5. 북한 핵문제와 대외경제정책 변화**
-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chapter 6. 북한 핵 보유와 북중관계의 변화**
- 이상만(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chapter 7. 북한 핵문제와 북미관계의 변화**
- 황지환(서울시립대 교수)
- chapter 8. 북한 핵문제와 북일관계의 변화**
-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chapter 9. 북한 핵실험 이후 북러관계의 변화: '냉각'에서 '초밀착'으로**
- 이웅현(고려대 세계지역연구소 연구교수)
- chapter 10. 북한 핵개발과 대외관계 변화**
- 이관세(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1. 학술활동

나. 제6차 삼청포럼 (2024. 3. 5.)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3월 5일(화) 평화관 1층 대회의실에서 제6차 삼청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이동기 교수(강원대 평화학과)가 “독일 분단시기 동독의 통일 포기과 남북관계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발표에서 “지금의 북한은 ‘통일 포기’를 선언한 1968년 동독보다는 ‘2민족’을 선언한 1971년 동독과 유사”하다며 사실상 ‘두 개 민족론’의 성격을 지닌 분리정책이라고 진단했다. 1971년과 1974년 사이에 동독의 국가 기구와 사회단체 및 정치 활동, 문화 영역에서 ‘독일(Deutschland, deutsch)’이나 ‘독일 전역(Gesamtdeutschland, gesamtdeutsch)’이란 용어가 사라진 점을 지적하며 이는 최근 북한의 대남기구 폐쇄, 대남방송 중단, ‘통일’ 단어 삭제 등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북한의 통일 포기는 한국 사회 주민 의식과 지향 변화에 대칭 조응한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세 가지 길이 있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길은 명목상의 ‘통일’ 및 ‘1민족 2국가론’을 유지하면서 서독식 양면전략의 길이다. 두 번째 길은 북한의 요구와 주장에 맞선 헌법 원칙 고수와 ‘자유통일론’ 또는 ‘평화통일’을 반복 주장하는 길이다. 세 번째 길은 현실 변화에 따른 헌법 수정과 지역평화 구상 맥락에서 한국-조선 국가연합 틀을 제시하여 평화적 협력관계의 제도화로서 장기적 정치 국가 결합 형식으로 나가는 길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이상주의 통일론을 버리고 현실적 분단 적대 조정의 구상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발표를 마친 후 포럼에 참석한 연구소 교수진, 전문가 등의 질의가 이어졌다.



제6차 삼청포럼 발표 주요 내용

1. 동독의 통일 규정과 선전

- 1949년 동독(독일민주공화국)의 건국 헌법과 1968년 개정 헌법에는 독일통일을 목표로 설정된 조항이 존재함.
 - 동독의 초기 헌법에서는 독일을 분할할 수 없는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였고, 동독은 통일 강령을 선전하며 서독과의 대화를 시도함.
- 1968년 헌법 개정에서는 독일을 “독일 민족의 사회주의 국가”로 선언하고, 통일에 대한 형식적인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통일을 더 이상 강조하지 않음.
 - 동독은 서독과의 대화를 중단하고 독일 내부의 사회주의 국가로 정체성을 강조함.
- 1974년 동독 헌법에서는 독일 국가에 대한 언급이 삭제되었고, 서독을 국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임.

2. 기본조약과 특수관계론

- 서독과 동독 간의 관계 규정을 위한 직접 협상이 시작되면서 1972년 기본조약이 체결되었음.(서독의 1민족 2국가론은 동독이 1954년부터 공식적으로 주장한 것을 뒤따른 것임)
 - 동 조약은 국제법상으로 두 국가에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면서 유엔 가입과 상주대표부 설치 등을 포함한 협력을 강화하고, 동서독 간의 여행, 통신, 무역 등이 쉬워짐. 이는 분단 상태를 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협력과 교류를 강조한 것임.
- 1991년 12월 남한과 북한이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의 ‘특수관계’ 개념은 빌리 브란트 총리에게서 나온 것임.
 - 1969년 10월 28일 브란트 총리는 정부 성명을 발표하면서 동서독 관계가 ‘특수관계’(Beziehung von besonderer Art)라고 밝힘.(“독일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더라도 둘은 서로에게 외국이 아니다. 둘의 관계는 특별한 종류의 관계일 수밖에 없다.”)

3. ‘독일’ 용어 제거와 동독 정체성

- 1971년~1974년 동안 동독에서는 국가기관, 사회단체, 정치 활동, 문화 분야에서 ‘독일(Deutschland, deutsch)’이라는 용어를 동독(DDR)으로 대체해 국가 신분이나 정체성을 강조함.
 - 동 기간에 동독 정부는 국가기관과 민간단체의 이름을 변경하고, 국가 민족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역사 정책을 수립

4. 남북관계 전망

- 조선(북한)의 통일 포기: 1968년이 아니라 1971년 동독?
 - 국가 인정과 체제 안정을 노린 2국가론을 넘어 '민족' 단절 성격 + 대남 기구 폐지와 명칭 개정 등은 1971년 동독을 연상: 사실상 2민족론의 성격을 지닌 분리정책
 - 現 정부의 '자유통일론' 만용과 前 정부의 평화번영론 무력에 대한 이중적 거리두기, 특히 前 정부에 대한 실망이 더 중요
 - 한반도 남북의 2민족화(Bi-nationalization)
 - 북한의 통일포기는 한국 사회 주민 의식과 지향 변화에 대칭 조응한다. 통일 망상 내지 선전과의 이별은 체제 공존의 새로운 전제이자 동력, 상대 인식과 인지의 변화: 적이나 형제가 아니라 매우 불편하고 심히 짜증나는 국가("눈 밑의 점")
 - 한국의 대응: 세 가지 길 제시
 - 첫 번째 길은 명목상의 '통일' 및 '1민족 2국가론'을 유지하면서 현실적으로 조응하는 서독식 양면전략의 길, 두 번째 길은 북한의 요구와 주장에 맞선 헌법 원칙 고수와 '자유통일론' 또는 '평화통일'을 반복 주장하는 길
 - 마지막 세 번째 길은 현실 변화에 따른 헌법수정과 지역평화 구상 맥락에서 한국-조선 국가연합 틀을 제시, 평화적 협력관계의 제도화로서 장기적 정치 국가 결합 형식으로 나가는 길
 - 통일은 비평화?
 - 이상주의 통일론('자유통일론'과 '통일번영론')을 버리고 현실적 분단 적대 조정의 구상안을 모색할 필요
 - 한국 사회 다수가 원하는 방식의 한-조 관계는 유럽연합 모델, 한국-조선 국가연합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시대. 경우에 따라서는 분단이 아니라 인습적인 통일 주장이 '비평화' 또는 '폭력'일 수 있음.
 - 민족주의나 발전주의에 기초한 민족 재통합이 아니라 현실적인 협력과 공존관계의 제도화에 집중, 연방제나 단일 통합국가를 지향하는 통일 논의를 포기하고 평화적 경합과 지속적 갈등·조정 및 간헐적 또는 안정적 친선 관계가 중첩된 국가간 결합의 틀 구축 논의의 기회 등장
 - 국가연합이 기반하는 연방주의의 핵심 원리는 그 국가결합을 통해 회원국가의 자율적 결정권과 이익 및 국가성을 높이는 것
- * 상기 내용은 '발제문'을 중심으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요약 정리한 것임.

다. 학술지(국·영문) 발간

1) 『ASIAN PERSPECTIVE』 (Vol. 48, No. 1) (2024. 3. 1.)



Asian Perspective는 동북아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주로 다루는 전문학술지로 1977년에 창간되었다.

1988년 학술진흥재단(현재 한국연구재단) 사회 과학분야 최우수 학술지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08년에는 사회과학논문 인용색인(SSCI)의 등재지로 선정되어 세계적인 수준의 학술지로 인정받았다.

2019년부터는 새로운 공동출판협정 체결에 따라 미국 존스 홉킨스대 출판부와 협력해 출판하고 있다.

Special Issue on Infrastructure Connectivity in Europe with Chinese Characteristics—Part 1 Guest Editors – Niall Duggan and Agnes Szunomar

Chinese Investments and Involvement in Strategic Sectors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Across Europe: Europe's Hybrid Relationship with China Beyond the BRI—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Niall Duggan and Ágnes Szunomár

A Qualitative Cost-Benefit Analysis of the Maritime Silk Road in Europe:
Who Benefits from the Initiative and Who Does Not
Enrique Martínez-Galán and Francisco José B.S. Leandro

China's State Capitalism and International Responses:
A Comparative Analysis of Infrastructure Investment Strategies
Maximilian Rech

Exploring Chinese Investments in Europe: Scope and Governance Dynamics
Carlos Lima da Frota Araujo

Vietnam

Navigating the Indo-Pacific: Vietnam's Hedging Strategies Amid the Geopolitical Rivalry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Xiangning Wu and Joseph Ching Velasco

Rebooting Tourism in Vietnam: The Ho Tram Strip
John Hutnyk

Korea and Japan

Ethnic Return Migrants in Korea and Japan: A Comparative Study of Nationalism and Citizenship
Zeljana Zmire

Book Symposium

Book Symposium on Mel Gurtov, Engaging China: Rebuilding Sino-American Relations.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2022, 200 pp.

Anne F. Thurston David M. Lampton Mel Gurtov

『ASIAN PERSPECTIVE』 (Vol. 48, No. 1, 주요 내용)

이번 호에서는 *Infrastructure Connectivity in Europe with Chinese Characteristics—Part 1* 관련 논문에서 중국의 유럽 투자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중점 내용으로는 △유럽의 해상 실크로드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 인프라 투자 전략에 대한 비교 분석 △주요 수혜자 파악 및 거버넌스 지표의 영향력 평가를 통한 일대일로 투자의 범위와 거버넌스 역학 분석을 주제로 한 세 편의 논문을 통해 유럽 인프라에 대한 중국의 투자 양상, 중국 정부가 이들 행위자에게 제공하는 지원, 그리고 중국의 투자에 대한 유럽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또한, 베트남의 인도태평양 전략, 지속가능성의 맥락에서 본 베트남의 포스트 팬데믹 관광,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민족 귀환 이주자 시민권의 복잡한 성격을 민족차별주의와 출범적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검토한 논문이 게재되었다.

뿐만 아니라, 본 저널의 새로운 'Book 심포지움' 시리즈의 두번째 연재물인 멜 거토프의 저서 *Engaging China: Rebuilding Sino-American Relations*의 서평도 수록되어 있다. (Rowan & Littlefield, 2022).

『ASIAN PERSPECTIVE』 (2023년 주요 내용)

Vol. 47, No. 4 FALL 2023

Special Session on China's Rise in Asia: China-Host Country Interactions and Transformations

Guest Editors - Alvin Camba, Guanlie Lim, and Victoria Chonn Ching

Vol. 47, No. 3 SUMMER 2023

Special Session on Russia-China Relations

Guest Editor - Sergey Radchenko

VOL.47, NO. 2, SPRING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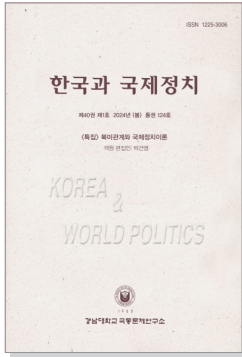
Special Issue on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n the Indo-Pacific - Part 2

Guest Editor - Hyun Ji Rim

VOL.47, NO. 1, WINTER 2023

Special Issue on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n the Indo-Pacific - Part 1

2) 『한국과 국제정치』 (제40권 제호 2024년 봄, 통권 124호) (2024. 3. 31.)



『한국과 국제정치』는 1985년 창간되어 매년 4회 발간되는 국문 정기간행물로서 남북한의 대내외 정치와 한반도의 주변 정세 및 통일전략, 그리고 미·중·러·일 및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와 외교안보 정책을 다루고 있다.

2004년 학술진흥재단(현재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로 선정되는 등 꾸준한 질적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위한 학문연구와 이론 형성에 이바지하는 학술지를 지향하고 있다.

이번 제40권 제1호, 2024년(봄) 목차는 다음과 같다.

< 특집 > 북미 관계와 국제정치 이론

- 국제 위기 흥정 이론과 북미 관계: 제1차 북핵위기(1993~94)의 사례
 - 김태현(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 신호 수신(受信)의 메커니즘과 북미 관계
 - 유현주(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전망이론과 김정은 시기 북미관계: 2012~2023
 - 황지환(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 존재론적 안보론과 북미관계: 이론과 현상, 새롭게 보기
 - 은용수(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조선의 변화하는 핵 서사: 미국과의 언어게임을 통해 표현되는 인정투쟁
 - 댄가준(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구갑우(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미국 대북담론 구조 연구: 대통령 화행을 중심으로
 - 윤성원(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 북미관계의 권역이론적 분석을 위한 시론
 - 전재성(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 ‘아(我)와 비아(非我)의 헤게모니 투쟁’으로 본 북미관계
 - 김학노(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과 국제정치』 (2024년 봄, 특집호) 주요 내용

『한국과 국제정치』 40권 1호는 특집호로 “북미관계와 국제정치이론”을 주제로 한 8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김태현 명예교수는 게임이론 분석으로 갈등/협력에 대한 이해를 체계화한 국제 위기 흥정 이론을 분석 도구로 1993년~94년간의 제1차 북핵 위기를 반추한다.

유현주 교수는 신호를 받는 수신자의 두 가지 메커니즘을 논의하며, 이를 2018년, 2019년에 진행되었던 북미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유화적 행위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살펴보았다.

황지환 교수는 전망이론의 위험 개념을 통해 김정은 시기 북한의 핵정책과 북미관계 변화를 설명한다. 지난 10년간 김정은 시기의 북미관계를 세 시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은용수 교수는 존재론적 안보라는 구성주의적 시각을 통해 북미관계라는 경험적 현상을 연계하여 과연 무엇이 새롭게 보이는지, 나아가 무엇을 새롭게 고칠 수 있는지를 답해보고자 하는 시도였다.

덴가촌 연구위원과 구갑우 교수는 존재론적 안보와 인정투쟁에 대한 시각을 통해 냉전 시기 적대국이었던 조선과 미국이 어떻게 기본합의서에 서명하고 관계 정상화를 준비할 수 있는 두 상대자가 되었다가 다시 극도의 적대 상태로 돌아갔는지를 살펴보았다.

윤성원 교수는 탈냉전기 정체성 확립을 위해 적(敵) 영역의 불확실성을 담론적 차원에서 구축한 미국, 그리고 실존적 차원에서의 불확실성에 직면한 북한의 이야기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탈냉전기 미국의 대(對)북한 개념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전재성 교수는 북미관계를 권역이론에 기초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권역이론의 메타이론적 기반과 구체적인 개념 및 이론적 내용을 설명하고, 북한과 미국의 외교정책의 권역적 배경을 살펴본 후 북미 양자관계의 특징들을 이론적으로 설명했다.

김학노 교수는 ‘아(我)와 비아(非我)의 헤게모니 투쟁’(‘아비헤투’) 정치 개념을 북미관계에 적용하여 설명한다. 이를 통해 남과 북의 서로주체적 통합이 북미관계의 교착상태를 타개할 출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라. 『인아시아포럼』 춘계 세미나 (2024. 3. 16.)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센터장 이상만) 주관으로 3월 16일(토) 국내 한·중관계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인아시아포럼』 정기 학술대회(극동문제연구소 세미나실)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박상수 충북대 국제경영학과 교수(인아시아포럼 회장), 박한진 한국외국어대 객원특임교수, 박형일 前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정현욱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등 국내 한·중관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여 3개 세부 주제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동 세미나에서 제1주제로 “신(New) 한·중 경제 관계를 위한 새로운 (Neo) 접근”을 박한진 한국외국어대 객원특임교수(前KOTRA 중국경제관측연구소장)가, 제2주제인 “외교 현장에서 느낀 중국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시각”을 박형일 前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이, 마지막 제3주제로 “2024년 대만 총통·입법위원 선거 평가와 대만의 대외정책 전망”을 정현욱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이 각각 발표했다.

발표를 마친 후 세미나에 참석한 한·중관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2. 교수 연구활동

가. 해외 전문학자 방문 간담회

1) 니콜라스 스완스트롬(Niklas Swanstrom 스웨덴 안보개발 정책연구소장) 일행 방문 간담회 (2024. 3. 8.)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3월 8일(금)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 니콜라스 스완스트롬(Niklas Swanstrom) 소장 일행 방문 간담회(평화관 1층 소회의실)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 니콜라스 스완스트롬(Niklas Swanstrom) 소장 과 매츠 엔맨(Mats Engman) 안보개발정책연구소 한국센터 책임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병철 북핵연구센터장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정재욱 미국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하여 한반도 안보 현황과 주변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참석자들은 △北 김정은 정권의 계속되는 도발 의도 △美 대선 이후 한미관계 전망 △북러 밀착 의도와 한러 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ISDP 측에서는 코로나 발생 이전의 북한 상황 경험을 소개 하였고, 연구소 측에서는 한국내 핵무장에 대한 여론과 핵무장 장애 요인들에 대해 설명 하였다. 또한 향후에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ISDP 간 학술적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ISDP: 스웨덴 스톡홀름에 기반을 둔 비영리 독립 정책연구기관으로 국제문제에 관한 폭 넓은 연구 활동을 펼치며,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현안을 연구하고 1.5트랙 다자회의 등을 진행



2) 이라크 아메리칸 대학교 술라이마니 캠퍼스 대표단 방문 간담회 (2024. 3. 21.)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딘 올렛 부소장은 3월 21일(목) 이라크 아메리칸대학교 술라이마니 캠퍼스(American University in Iraq, Sulaimani [이하 AUIS]) 대표단과 간담회(평화관 1층 소회의실)를 개최했다. 동 간담회는 AUIS 사회과학학부의 잔루카 스페자(Gianluca Spezza, 학부장, 국제관계학 조교수), 토빈 하트넬(Tobin Hartnell, 학부장, 고고학/세계사 부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딘 올렛 부소장 등이 참석하였다.

하트넬 박사와 스페자 박사는 극동문제연구소 딘 올렛 부소장을 만나 AUIS와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개발 및 확장을 위한 사회과학학부의 계획과 노력을 소개하고 학술 교류 및 연구 등 협력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대표단은 지난 몇 년 동안 학생들 사이에서 아시아 지역, 특히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AUIS는 동아시아 연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점진적인 노력을 해왔고, 사회과학학부는 중동 지역에서 처음으로 한국 관련 프로그램 계획을 확장해 중동한국학연구소(Institute for Korean Studies in the Middle East [IKSM])를 설립했다고 설명

* IKSM: 이라크내 한국에 대한 학문적인 지식의 보급을 촉진하고, 언어, 역사, 문화, 사회, 정치 등 다양한 한국 관련 수업을 개설해 이라크-쿠르드 지역에서 한국에 대한 지식과 논의를 증진하고 확대하는데 중점을 둠



2. 교수 연구활동

나. 학술활동

이관세 소장

1. 대한적십자사 전직원 대상 특강
 - 일자/장소: 2024. 3. 4.(월) / 대한적십자사 대회의실
 - 주제: 2024 한반도 정세 전망

김상범 교수

1. 한반도평화포럼 주최, 3월 월례토론회
 - 일자/장소: 2024. 3. 28.(목) / 창비서교빌딩 2층 대회의실
 - 내용: '북한의 통일개념 변화와 두 개 국가론' 토론

안호영 석좌교수

1. 美 트럼프 대통령 전 국가안보 부 보좌관 매트 포팅어(Matt Pottinger) 면담
 - 일자/장소: 2024. 3. 5.(화) / 러플리 버거 식당
 - 내용: 북한의 민족 동질성 부인, 최근 북-러 관계 등에 대한 의견 교환
2. 핵 전문가 좌담회 참석
 - 일자/장소: 2024. 3. 7.(목) / 최중현 연구소
 - 내용: 햄리(Hamre) CSIS 소장, 빅터 차(Victor Cha) 교수 등과 핵협의그룹(NCG)중심으로 한 확장 억제력 강화 방안 협의
3. 美 Hudson Institute 인-태 국장 크로니(Cronin) 면담
 - 일자/장소: 2024. 3. 7.(목) / 퍼 시슨즈 호텔
 - 내용: 한미 관계 강화에 대한 의견교환
4. 아산정책 포럼 토론회
 - 일자/장소: 2024. 3. 19.(화) / 아산정책연구원
 - 내용: 핵협의그룹(NCG) 강화 방안과 한·미 양국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 공고화 방안 논의
5. EU 외교부 아태 담당 국장 크반스트롬(Kvanstrom) 면담
 - 일자/장소: 2024. 3. 21.(목) / EU 대사관저
 - 내용: 북한의 민족 동질성 부인, 최근 북-러 관계 등에 대한 의견 교환

곽태환 석좌교수

1. 제1회 LA 한반도 평화포럼 참석
 - 일자/장소: 2024. 3. 7.(목) / 로스앤젤레스 Oxford Palace Hotel
 - 내용: '한반도 비핵-평화체제구축: 창의적 프레임워크(Framework) 구상' 발표

다. 언론활동

임을출 교수

1. 美 「38노스(North)」 칼럼 게재
 - 일자: 2024. 3. 1.(금)
 - 내용: 'Kim Jong Un has broken with decades of North Korean policy'
2. YTN (뉴스라운지) 출연
 - 일자: 2024. 3. 18.(월)
 - 내용: '北,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 김주애 후계구도 강화?'

조진구 교수

1. 아주경제 칼럼 게재
 - 일자: 2024. 3. 14.(목)
 - 내용: '미국의 동맹이자 유엔사 후방기지 일본...새로운 한일 안보협력방안 고민할 때'

안호영 석좌교수

1. 한국일보 "안호영의 실사구시" 기고
 - 일시: 2024. 3. 11.(월)
 - 내용: '대만 블랙 스완에서 국익을 지키려면' 제하에 대만 총통 선거 이후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압력 동원 전망 및 대응 방향 제시
2. 코리아 타임스 기고
 - 일자: 2024. 3. 20.(수)
 - 내용: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Taiwan: its implications for Seoul' 제하에 대만 총통 선거 이후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압력 동원 전망과대응 방향 제시

3. IFES 브리프

IFES 브리프(요약)

푸틴의 ‘북한의 자체 핵우산 보유’ 발언 의미와 전망

(2024. 3. 19.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로시야1’ 방송 등과의 인터뷰(03.13)에서 “북한이 자체적인 ‘핵우산’을 가지고 있으며 핵과 관련해 러시아에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언급

푸틴의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무시하고 북한의 핵보유국(nuclear weapon state) 지위를 공식 또는 묵시적으로(tacitly) 인정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

핵우산은 일반적으로 미국, 러시아 등 핵무기 강대국들이 자신의 동맹국이나 파트너 국가에 대하여 제공하는 안전보장(security guarantee)임. 핵무기 보유국 스스로 ‘핵우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음.

핵비확산조약(NPT)에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만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음.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NPT 비가입국이었으며 이후 핵무기를 보유하고서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통용. 북한은 NPT 가입국(1985.12) 기간 핵무기를 개발하고 탈퇴(2003.01.10)한 상태임.

러시아는 북한 핵무기가 근본적으로 (미국의 오랜 군사적·경제적 압박에 따른) 방어용 성격의 무기임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복원하고자 함. 이외에, 푸틴은 중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동북아에서 북한을 레버리지(leverage)로 활용하여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견제하고 역내 영향력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함.

4. 북한·국제 정세 동향

북한

-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FS) 비난하는 국방성 대변인 담화 발표 (3.5.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 “책임적인 군사활동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한·미가 “안보불안을 각일각 심각한 수준에서 체감하는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 경고
- **·3.7. 김정은, 대연합부대 포사격훈련 지도 (3.8.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 “적의 수도를 타격권안에 둔 국경선 부근의 장거리포병 구분대들의 위력시위 사격” 진행
- **·3.13. 김정은, 탱크병대연합부대 간 대항훈련경기에 신형 주력탱크 참가 (3.14.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세계에서 제일 위력한 탱크를 장비”했다고 자부한다며 신형 주력탱크 실전배치 시사, 직접 신형 주력탱크 운전
- **·3.15. 김정은, 강동종합온실 준공 및 조업식 참석 (3.16.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 강동종합온실을 김정은의 ‘위민헌신의 결실’로 대대적 선전, ‘사랑하는 자제분’(김주애)을 김정은과 함께 ‘향도의 위대한분들’로 언급
- **·3.19.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미사일용 고체연료발동기 지상분출시험 (3.20.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5개년계획 기간의 전략무기부문 개발 과제들이 훌륭히 완결’된 것에 대만족 표시
- **·3.23.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정식 해체 (3.24.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 “북남관계가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된 현실에서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조직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음.”고 발표
- **·3.25. 김여정 당 부부장 담화 (3.25. 조선중앙통신)**
 - 핵·미사일 및 납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일본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며,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둠
- **·3.26. 김여정 당 부부장 담화 (3.26. 조선중앙통신)**
 - 일본의 태도 명백히 파악했고 “일본 측과의 그 어떤 접촉도, 교섭도 외면하고 거부” 결론
- **·김성남 국제부장, 베트남 방문 (3.27. 노동신문)北**
 - 1일차(3/25) 레 호아이 쩡(Le Hoai Trung) 베트남공산당 중앙위 대외부장 회담에서 “대미·대적 투쟁 노선과 정책에 대하여 언급”

4. 북한·국제 정세 동향

미국

- **미라 랩-후퍼 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보좌관, 비핵화 중간 단계 고려 시사 (3.5. 백악관 브리핑)**
 -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지만 “그 과정에서 중간단계(interim steps)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발언
- **폴 러캐머라(Paul J. LaCamera) 주한미군사령관 인터뷰 (3.11. The Wall Street Journal)**
 - “대북 역제의 초점이 과거 북한의 핵 능력 발전 저지에서 이제는 핵무기 사용 방지로 바뀌고 있다”고 언급

중국

- **중 왕이 외교부장, 제14차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 해소 우선”이라고 발언 (3.7. 연합뉴스)**
 - 한반도 문제의 근원 “냉전의 잔재”라고 진단, ‘쌍궤병진(비핵화와 북미평화협정 동시추진)’과 단계적·동시적 원칙의 기존 한반도 정책 재확인

일본

- **기시다 후미오 총리, 북한에 의한 납치피해자 가족 면담 (3.4. 日총리공관 발표)**
 - “북일 간 불신감 해소 및 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 간 관계 구축 중요”하다며, “조속히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 실현을 위해 고위급 협의 추진” 발언
- **일본 방위성, 오키나와 우루마시 가쓰렌(勝連) 분둔지(分屯地)에 지대함미사일 연대 창설 발표 (3.22. 아사히신문)**
 - 오키나와 본섬에 최초로 미사일부대 설치, 적기지공격능력 담당 장사정미사일 배치 가능성, 지금까지 설치한 6개 부대의 사령탑 역할

러시아

- 3.13.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로시야1' 방송 등과의 인터뷰 (3.13. 러시아 대통령실)
 - “북한이 자체적인 ‘핵우산’을 가지고 있으며 핵과 관련해 러시아에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언급

■ 해외 전문가 논평

- John Delury(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바이든 대통령이 잡기만 한다면 북한에 대한 해결책은 있다 (The New York Times, 3.16)
 - 6자회담을 하던 2000년대와 현재의 동북아 정세 및 북한의 상황 변화
 - 이미 2022년에 핵 보유를 법제화한 북한에게 당장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이는 장기적 목표로 설정 필요
 - 따라서, 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전면에서 나서서 미국의 목적이 비핵화가 아닌 북미 관계 개선과 경제 지원이라는 프레이밍(framing)을 해 북한을 테이블로 끌어내야 할 것
- Sydney Seiler(CSIS 상임고문, 前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담당 국가정보분석관): 미 국가정보국 「2024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 분석 (CSIS, 3.18)
 - 보고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 역량의 지속적인 양적·질적 성장을 다루었으며, 김정은이 진지한 자세로 비핵화 회담에 임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
 - 보고서에서 올해부터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군수물자를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받는 기술 이전의 구체적 사항에 관한 내용이 부족
 - 한편, 북한이 코로나19와 자체적인 고립 속 여태까지는 잘 버텼지만, 언젠가는 경제적 안정을 위해 절대권력을 조정(balance)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망

연구소 소식

연구소 동정

언론 속의 IFES

추천 도서

예정사항

안내사항



1. 연구소 동정

■ 김용현 북한연구학회회장 일행, 박재규 총장 방문 (2024. 3. 22.)

- 일자/장소: 2024년 3월 22일 (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참 석 자: 박재규 경남대 총장,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김용현 북한연구학회회장, 허정필 북한연구학회 총무이사
- 내 용: 학회 발전을 위한 의견 나눔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임명

- 김병욱 (기간: 2024.03.01. ~ 2025.02.28.) / 現 (사)북한개발연구소 소장
- 박소혜 (기간: 2024.03.01. ~ 2025.02.28.) / 現 국회도서관 비서관
- 임형신 (기간: 2024.03.18. ~ 2025.03.17.) / 前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1. 연구소 동정

■ 세종연구소 보관 특수자료 인수 (2024. 3. 19.)

· 극동문제연구소는 세종연구소에서 특수자료 111권(단행본과 간행물)을 인수하였다.



< 주요자료 목록 >

자료명	출판사명	출판 연도
아동문학	문학예술출판사	2003
남북과학기술용어집(전자공학)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04
과학원 통보	과학기술출판사	2002
문화어학습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7
생물학	과학기술출판사	1991
북조선정책동향	라디오프레스	2003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	평양출판사	2001

2. 언론 속의 IFES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 교과서 발간보도 (2024. 3. 26.)

“극동문제연구원·북한대학원대, 김정은 시대 외교 다룬 학습서 발간”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와 북한대학원대학교는 공동으로 김정은 시대의 외교정책을 분석한 학습용 교과서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를 발간했다.

이 책은 40여년간 이어져 온 북한의 핵개발 역사 속에서 대외관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서술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함의와 김정은 시대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 언론보도 현황

연번	보도일자	언론사명	기사 제목	비고
1	3월 26일	연합뉴스	극동문제연구원·북한대학원대, 김정은 시대 외교 다룬 학습서 발간	
2	3월 26일	세계일보	'북한학 산실' 북한대학원대·극동문제연구원, 북핵외교 교과서 발간	
3	3월 26일	한국경제	극동문제연구원·북한대학원대, 김정은 시대 외교 다룬 학습서 발간	
4	3월 26일	남북경협뉴스	김정은 시대 외교 다룬 학습서,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 발간	
5	3월 30일	뉴스1	'북한 핵문제와 대외관계' 출간... '北핵·외교 전략' 꿰뚫는 '북한 학습서'	

제6차 삼청포럼 결과 보도

(2024. 3. 6.)

[경남대 극동研] 북한의 '통일포기'... 동독의 길 밟나?



<제6차 삼청포럼에서 발표 중인 이동기 강원대학교 교수>

<출처 : SPN 서울평양뉴스>

3. 추천 도서

북한·납치 문제의 심층(北朝鮮・拉致問題の深層)



저 자: 스즈키 다쿠야(鈴木拓也)

출간일: 2024년 2월 28일

출판사: 아사히신문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는 우리에게 큰 관심사가 아닐지 모르지만, 북일 관계를 교착상태에 빠뜨리고 있는 최대 난관이다. 지난달 말에 나온 이 책을 쓴 스즈키 기자는 가장 보수적인 산케이신문 기사를 거쳐 성향이 다른 아사히신문의 서울 특파원을 했던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다. 사회부와 정치부 등을 출입하면서 정부 관계자나 납치피해자 가족과 그 지원단체 등 납치 문제의 ‘당사자들’을 오랫동안 취재한 결정체가 이 책이다.

지난해 말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는 등 대남정책의 대전환을 선언했던 것과 달리 일본에 대해서는 이와는 사뭇 다른 시그널을 보내 그 의도에 관심이 집중됐다. 1월 5일 김정은 위원장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각하’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노토반도 지진 피해에 대한 ‘위문전문’을 보낸 데 이어 2월 15일에는 김여정 당 부부장이 이례적으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대일정책에 관한 담화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김여정은 담화에서 일본이 “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갈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는데, 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이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취한다면 북한도 호응할 생각이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었다.

지난해 11월 26일 기시다 총리는 납치피해자 가족 등이 주최한 국민대집회 연설에서 “북일 정상회담의 조기 실현을 위해 다양한 루트를 통해 다양한 제의를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서는 현재 북일 정부 간 접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연설 약 두 달 전인 9월 29일 아사히신문은 2023년 3월과 5월 일본 정부 관계자가 동남아시아에서 북한 노동당 관계자를 만났으며, 일본 정부는 가을에 정부 고관을 평양에 보내는 문제를 검토했었다고 보도했는데, 이 기사를 쓴 기자가 이 책의 저자 스즈키다. 5월 27일 국민대집회에서 기시다는 전제 조건 없는 정상회담의 조기 실현을 위해 총리 직할의 ‘고위급 협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제 조건 없는 정상회담은 고(故) 아베 신조 총리가 처음 사용한 것이지만, ‘총리 직할의 고위급 협의’는 여기서 처음 나온 말이다.

3. 추천 도서

그러나 '전제 조건 없는' 정상회담은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기시다 총리는 납치 문제의 해결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해왔으며, 정상회담이 열리면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수밖에 없다. 2023년 5월 29일 박상길 북한 외무성 부상은 담화에서 일본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대국적 자세에서 새로운 결단을” 한다면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렇지만, 6월 27일 북한 외무성 산하 일본연구소의 리병덕 연구원은 납치 문제는 “이미 되돌릴 수 없이 최종적으로 완전무결하게 해결”되었음에도 일본이 피해자 전원의 귀국 실현을 고집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라는 식의 허망한 망상에 불과”하며, 실현 불가능한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언급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2024년 3월 25일과 26일의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이어 29일 최선희 외무상 담화를 통해 북한은 일본의 '어떤 접촉 시도'도 거부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발표했다. 북일 양국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 관계 정상화는 우선순위가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납치 문제와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 조건 싸움이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은 있다. 납치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와 국민의 분노는 이해가 가지만, 동시에 납치 문제와 일본의 식민지배로 인한 피해 문제에 관한 이율배반적인 일본의 태도에는 답답함과 먹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4. 예정사항

미국방대학 한국 방문단과의 간담회 (2024. 4. 11.)

- 일자: 2024. 4. 11.(목)
- 장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회의실

제7차 삼청포럼 (2024. 4. 23.)

- 일시: 2024. 4. 23.(화), 19:00 ~ 21:00
- 장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평화관 1층 대회의실
- 주제: 2024 미국 대선과 한반도
- 발표자: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

5. 안내사항

도서관 회원가입 안내

● 가입안내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이메일 (pedia@kyungnam.ac.kr) 발송

● 연회비 납부

<1년 회비>

- 학생회원: 30,000원, 일반회원: 50,000원, 기관회원: 100,000원
- 재가입: 회비 만기일 전까지 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만기안내문 발송)

<평생회비>

- 개인평생회원: 100만원 이상 / 기관평생회원: 300만원 이상

<납부방법>

- 경남은행 570-07-0011980 (예금주: 경남대학교)으로 입금

● 회원의 혜택

- 본 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가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와 심포지엄 등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본 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Asian Perspective와 『한국과 국제 정치』, 『현대 북한연구』를 포함, 보고서 및 소식지 등의 간행물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 본 연구소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대출,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기존 출판도서 구입시 30%의 할인혜택을 드립니다.(평생회원에게는 무료 기증)
- 본 연구소 도서관을 방문하여 미국의 공신력 있는 북한 전문뉴스 웹사이트 NK Pro(www.nknews.org/pro)의 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입문의

Tel. 02-3700-0725,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회원 담당자



IFES.kyungnam.ac.kr
ifes@kyungnam.ac.kr
T. 02 3700 070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길2 (03053)